



1. 정답 ③

③ 고기를 재다(O)

재다: 동사

1. 물건을 차곡차곡 포개어 쌓아 두다. [비슷한 말] 쟁이다.

ex) 어머니는 철 지난 옷들을 옷장에 차곡차곡 재어 놓았다.

ex) 아버지는 벧단을 논에 재고 있었다.

2. 고기 따위의 음식을 양념하여 그릇에 차곡차곡 담아 두다. [비슷한 말] 쟁이다.

ex) 쇠고기를 양념에 재어 놓았다.

ex) 김치를 담그려고 배추를 소금물에 재어 두었다.

오답

① 담배를 피다(X) → 담배를 피우다 = 담배를 태우다

ex) 담배를 환풍구 쪽에서 피워 주세요.

② 날이 개이다(X) → 날이 개다 “흐리거나 굵은 날씨가 맑아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는 ‘개다’이므로, ‘날이 개다/비가 개다/날씨가 활짝 개다’와 같이 쓰는 것이 알맞다.

④ 차에 치다(X) → 차에 치이다

치-이다: 활용 : 치이어[치이어/치여, 치이니

동사 「…에」 ‘치다9(차나 수레 따위가 사람을 강한 힘으로 부딪고 지나가다)’의 피동사.

ex) 트럭에 치이다

ex) 지나가던 차에 치인 아이들이 크게 다쳤다.

2. 정답 ①

①번에 숫나비 → 수나비(O)/ 숫나사 → 수나사(O)

①번에 에두르다(O) :

1. 에워서 둘러막다.

ex) 경찰이 집을 에두르고 범인에게 자수하기를 권했다.

ex) 눈이 내린 날이면 마을 청년들이 뒷동산을 에둘러 싸고 토끼몰이를 하곤 했다.

2. 바로 말하지 않고 짐작하여 알아듣도록 둘러대다.

ex) 그가 말을 에둘러 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대충 알아들을 수는 있었다.

② 푸주간(X) → 푸줏간(O)

‘푸줏간’만이 맞다.

‘푸주 + 간(間)’의 합성어가 ‘푸줏간’이다. 또 집을 나타내는 ‘간’을 접미사로 볼 수도 있다.

‘푸주+ -간’ 이 경우 파생어로 보는데 이 경우에도 파생어임에도 예외 규정으로 사이 ‘ㅅ’을 쓰는 것으로 한다.



③ 등교길(X) → 등곳길(O)

④ 거적떼기(X) → 거적때기(O)

3. 정답. ②

② 비웃음은 ‘苦笑(고소)’가 아니라 ‘誹笑(비소)’이다.

※ 誹(비): 헐뜯을 비/ 苦笑: 쓴웃음

① 捷徑(첩경): 捷(첩) 빠를 첩, 徑(경) 지름길 경

③ 裁斷(재단): 裁(재) 마를 재, 斷(단) 끊을 단

④ 懈怠(해태): 懈(해) 게으를 해, 怠(태) 게으를 태, 懈怠=懶怠(나태)

4. 정답 ①

뻑뻑이: 사이가 촘촘하게.

무성히: 풀이나 나무 따위가 자라서 우거져 있는 상태로.

자못: 생각보다 매우.

워낙(에): 두드러지게 아주.

촘촘히: 틈이나 간격이 매우 좁거나 작게.

5. 정답 ④

④ 한 문장 안에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쓰고, 각 물음이 독립적일 때는 각 물음의 뒤에 쓴다.

ex) 너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ex) 너는 여기에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왔니?

오답

①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놀람, 항의, 반가움, 꾸중 등의 강한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문장에는 물음표 대신 느낌표를 쓸 수 있다.

ex) 일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법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ex) 우리가 얼마 만에 만난 것이냐!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는 물음표 대신 마침표를 쓸 수 있다.

ex) 도대체 이 일을 어쩐단 말이냐.



ex) 이것이 과연 내가 찾던 행복일까.

인용한 문장이 의문문이면 물음표를, 감탄문이면 느낌표를 쓰되, 의문이나 감탄의 정도가 약할 때는 물음표나 느낌표 대신 마침표를 쓸 수 있다.

ex) <논어>에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구절이 있다.

②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가운뎃점을 쓴다.

ex) 민수·영희, 선미·준호가 서로 짝이 되어 윗놀이를 하였다.

ex) 지금의 경상남도·경상북도, 전라남도·전라북도, 충청남도·충청북도 지역을 예부터 삼남이라 일러 왔다.

③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쓴다.

ex) 갑돌이는,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ex) 철원과,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산간 지대에 예년보다 일찍 첫눈이 내렸습니다.

6. 정답 ③

<보기> 欲速則不達(욕속즉부달)

한자성어 欲速不達(욕속부달): 어떤 일을 급(急)하게 하면 도리어 이루지 못함

③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 못한다.

출전

논어(論語)의 자로편(子路篇)

공자(孔子)의 제자로 자하(子夏)가 있다. 그는 본명(本名)이 복상(卜商)이며 자하(子夏)는 그의 자(字)이다. 공자(孔子)의 문하(門下) 10철(哲)의 한 사람이다. 자하(子夏)가 노(魯)나라 거보(莒父)의 수령(守令)이 되어 스승께 고을을 다스리는 방도(方道·方途)를 여쭙었는데, 공자(孔子)께서 알려주시기를, 「공적(功績)을 올리려고 일을 속히 하려고 서둘지 말고, 조그만 이득(利得)을 탐내어 보지 말아야 한다. 속히 서둘면 도리어 달성(達成)하지 못하고, 조그만 이득(利得)을 탐내면 큰일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라고 했다.

오답

① 서 발 막대 휘둘러도 거칠 것 없다. → 집이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다.

집안에 살림이라곤 아무것도 없어서 세 발이나 되는 막대를 휘둘러도 거칠 것이 없다는 뜻.

② 개 꼬리 삼 년 두어도 황모 되지는 않는다. → 본바탕이 좋지 아니한 것은 어떻게 하여도 그 본질이 좋아지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 정답 ③

③ ㉠ 입말은 ‘사회적 변동이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③번의 동태성(動態性)밖에 없다. ㉠동태성에 대조되는 말은 정태성(靜態性)이다.

참고로 제시문은 전 연세대 국문과 노대규 교수의 논문(1996) <입말의 특성>에서 그대로 발췌한 글이다.

※ 입말체 = 구어체(口語體) = 회화체(會話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을 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어투와 표현으로, ‘~요’, 반말: ‘~나 / ~너’체가 주로 쓰이며, 반말, 줄임말이 많다. 명령형은 주로 직접명령어를 쓴다.

ex) 저 왔어요./ 저리 가./ 천천히 먹어./ 뭐먹어?/ 뭐해?/ 계세요?

글말체 = 문어체(文語體) = 문장체(文章體): 우리가 글을 쓸 때, 또는 제 삼자적 입장에서 설명이나 서술을 할 때 쓰는 어투와 표현으로, ‘~다.’, ‘~까?’, ‘~오?’, 명령형 ‘~오.’체를 주로 사용한다. 명령표현은 주로 간접명령어(전달체)를 쓴다.

ex) 오늘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위험지역의 사람들은 빨리 대피하라는 경고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가시오?/ 노인더러 어디까지 가시는지 여쭙 보았다./ 내일까지 가져 오십시오./

8번. 정답 ②

② 사람들은 익숙한 대상을 통해 하늘의 이치를 헤아리려 했다.

제시문 출전 박지원 《열하일기》中 <象記>

연암 박지원은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당시 사람들과 달랐다. 우리가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자 한다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넓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상기>의 글을 통해 박지원은 말하고 있다. 즉 하늘의 이치란 것도 인간이 지어낸 허상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갈래: 고전 수필

전체 구성:

기: 처음 코끼리를 본 충격

승: 코끼리의 외모에 대한 묘사

전: 사람들은 모든 사물의 근거를 하늘에서 찾으나, 코끼리는 일반적인 하늘의 규칙에 어긋남.

결: 고정불변의 이치는 존재하지 않음.

주제: 좁은 틀에서 벗어나 넓게 생각하기, 고정불변의 이치란 존재하지 않음.



9. 정답 ③

③ 재능 기부의 현황을 토대로 의의와 필요성을 밝히고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 작문(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제 찾기이다.

주제문이 곧 결론이다.

서론은 논제 제시를 하는 부분이다.

논제 제시를 하는 방법에는 '현상 제시'와 '문제 제기'가 있다.

그러니 서론에는 반드시 결론을 도출할 논제가 제시되어 있다.

<보기>에서 주어진 서론을 보면

I. 서론

1. 재능 기부 현황과 재능 기부에 대한 인식 실태
2. 재능 기부의 의의와 필요성

③ '재능 기부의 현황을 토대로 의의와 필요성을 밝히고'를 도출할 수 있다.

본론은 서론에서 제시한 것을 토대로 왜 재능 기부가 필요한지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기>에서 주어진 본론을 보면

II.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

1. 홍보 부족
2. 참여 의식 부족
3. 프로그램 영역의 편중
4. 기부자와 수혜자의 연계 채널 미비

III. 재능 기부 활성화 방안

1. 홍보 강화
2. 국민의 공감대 형성
3. 프로그램 영역의 다양화
4. 연결망 구축

③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를 도출할 수 있다.

결론은 '재능 기부를 활성화하자'이다.



10. 정답 ④

제시문 첫문단 ‘쓰나미는 해안에 나타나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지만 먼바다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에서 ④번 선택지 ‘쓰나미는 일본어 합성어로, 가까운 바다보다 먼바다에서 더 위협적이다.’가 부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① 제시문 둘째 문단 ‘쓰나미의 원리도 바로 이 파동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1. 정답 ④

- ① 노장은 결코 늡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동사)
- ② 노인들은 꽃나무를 잘들 키우신다. (동사)
- ③ 곧 날이 밝으면 출발할 수 있다. (동사)
- ④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함이 많다. (형용사)

12. 정답 ④

④ 아버님께서는 집안의 대소사에 대해 항상 아랫사람들에게 여쭙어 보십니다.
→ 물어 보십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버지가 아랫사람에게 높임법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틀렸다.

‘여쭙다’는 일반적으로 객체 높임법에서 잘 쓰이는 어휘다. 문장의 주어는 ‘아버지’이다. 주체 높임법이 사용된 곳은 밑줄 친 부분이다. ④ 아버님께서는 집안의 대소사에 대해 항상 아랫사람들에게 여쭙어 보십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문장에서 주체인 아버지가 아랫사람들에게 높임법을 쓸 이유가 문법적으로는 없다.

13. 정답 ①

<보기>에서 4음절 = 평음보, 3음절(이하) = 소음보, 5음절(이상) = 과음보

평시조 종장의 율격은 ‘소음보 + 과음보 + 평음보 + 소음보’

‘3+5+4+3’의 형식에 맞지 않는 것은

①번 ‘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임을 찾을 수 있다.

①번은 ‘3+4+3+4’의 형식으로 보기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



14. 정답 ②

② **숫불빛** → 원순모음화가 반영되었다.

※ 원순모음화(圓脣母音化): 순음 아래의 ‘ㄱ’이 ‘ㄴ’로 변하는 현상.

양순음 ‘ㄴ·ㅃ·ㅍ·ㅌ·ㅍ’ 다음에서 비원순모음 ‘ㄱ’이 원순모음 ‘ㄴ’로 바뀌는 음운현상을 뜻한다. 중세국어 ‘물[水]·불[火]·풀[草]’이 근대국어 특히 17세기 말엽 이후 ‘물·불·풀’로 원순모음화 되었다.

오답

① ‘의’가 현대 국어와 다른 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 현대 국어 관형격 조사 ‘의’가 ‘그믐밤의’에서 오늘날 ‘에’처럼 부사격 조사로 쓰였다. 그믐밤의 → 그믐밤에

③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된다. **끓기** (끓다 → 끓기)

④ 혼철 표기가 발견된다.

물밋출 분철 표기 물밋을(물밋을), 연철 표기 물미출(물미틀), 혼철 표기 **물밋출**(물밋틀)

15. 정답 ③

③ ㉠ 마다하셨던 기본형은 '마다하다'인데 문맥상 '마다하지 않다'라고 써야 한다.

여기서 '마다'는 고어에서 '싫다'는 뜻인데, -하다가 붙어서 '거절하거나 싫다고 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한마디로 '싫어하다'는 뜻.

<보기>에서 '선생님은 제자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 '마다하지 않으셨던'으로 고쳐야 한다.

㉡ 가능한 자주 연락드릴게요. → '가능한 한(限)' 형태가 되어야 한다. ※ 한(限) 명사 선택지에서는 '되도록'을 썼다. '가능한 한' 또는 '되도록'으로 고쳐도 한다.

오답

① ㉢ 그 동안 → 그동안, ㉣ 있을지 → '기간', '동안'인 경우 띄어 쓴다. 나머지는 붙여 쓴다.

② 선생님의 정성이 얼마나 ㉤ 고마웠던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 이 문장에 주어를 붙여 다시 쓰면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잊을 수 없다? '선생님의 정성을' '고마움을'

그래서 고마움의 주체는 주어 '제가'이다. '고마우셨던지'로 고치면 안 된다.

④ ㉥ 어쭙잖은: 비웃음을 살 만큼 언행이 분수에 넘치는 데가 있다는 뜻으로 '어쭙잖다'가 옳다. 한글맞춤법 제5항에 따르면, 한 단어 항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이를 '어쭙잖다'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어쭙잖은'으로 고치면 안 된다.



16. 정답 ③

<보기>의 논증 방식은 '유추'이다. 유추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③번이다.

※ 유비추리: 2개 또는 그 이상의 현상들이 어떤 속성·관계 또는 구조·기능에서 일치하거나 유사하다는 것에서 그 현상들이 다른 속성·관계·구조·기능에서도 일치하거나 유사하리라고 추리하는 논리적 과정을 말한다.

ex) 황소개구리 : 토종개구리 = 영어 : 우리말

황소개구리와 토종개구리의 관계는 마치 영어와 우리말의 관계와 같다.

17. 정답 ②

<보기>에 의거하면 '좋다(good)의 반의어는 '안 좋다(ungood)'가 되어야 한다.

오답

① <보기>에 의거하면 『신어사전(新語辭典)』 등재된 '좋다(good)'를 중심으로 '더 좋다(plusgood)' '더욱 더 좋다(doubleplusgood)'로 할용할 수 있다.

③ <보기> 첫문장 "말을 없앤다는 건 멋진 일이야. 없애는 건 동의어뿐 아니지. 반의어도 있어."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④ <보기> 맨 끝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보기> 출전: <1984>, 조지 오웰

조지 오웰의 <1984>가 쓰여진 것은 1949년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디스토피아"소설이다.

거대하고 지배적인 세상에 개인의 저항 그리고 끝내 굴복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윈스턴 스미스의 일생을 담은 이 소설은 빅브라더의 감시 하에 살고 있는 오세아니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18. 정답 ④

㊟ 戰船 트던 우리 몸도 漁舟에 唱晚하고
부국강병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것이다.

時時(시시)로 멀이 드러 北辰(북진)을 바라보며
북극성, 임금님(계신 곳)
→ 때때로 머리를 들어 임금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傷時 老淚(상시노루)를 天一方(천일방)의 디이는다.
안 좋은 시기에 흘리는 늙은이의 눈물
→ 시국을 근심하는 늙은이의 눈물을 하늘 한 모퉁이에 떨어 뜨린다.

吾東方(오동방) 文物(문물)이 漢唐宋(한당송)에 디라마는
→ 우리나라의 문물이 한, 당, 송나라에 뒤떨지라마는
... (중략) ...
吾王 聖德(오왕성덕)이 欲并生(욕병생)하시니라.
→ 우리 임금님의 성스러운 덕이 너희와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시느니라

太平天下에 堯舜君民(요순군민) 되야 이서
→ 태평스러운 천하에 요순시대와 같은 백성이 되어

日月光華(일월강화)는 朝復朝(조부조)흐얏거든
→ (해와 달 같은) 임금님의 성덕이 아침마다 계속되니

戰船(전선) 트던 우리 몸도 漁舟(어주)에 唱晚(창만)하고
→ 전선을 타던 우리들도 고깃배에서 저녁 무렵을 노래하고

秋月春風(추월춘풍)에 높히 베고 누어 이서
→ 가을 달 봄바람에 베개를 높이 베고 누워서

聖代(성대) 海不揚波(해불양파)를 다시 보려 호노라
바다에 파도가 일지나지 않음, 태평성대
→ 성군치하의 태평성대를 다시 보려 하노라

- 박인로, 「선상탄(船上歎)」 -

19. 정답 ②

컨셉트(X) → 콘셉트(O)
리모콘(X) → 리모컨(O)

※ 원포인트 레슨: 일반적으로 강세가 앞에 올 때 ‘콘!’, 뒤에 올 때 ‘컨!’



20. 정답 ④

④ (라)는 '개미떼'로 비유될 수도 있는 인간을 바라보는 화자의 내면이 그려져 있다.
→ 마른 갈대를 꺾어 응접실에 치장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라)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지만
아프리카 한복판 가뭄에 굶어 죽은
수십 만의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갈대였을까
갈대같이 말라서 쓰러져 죽고 마는
아무 생각 못 하는 개미떼들이었을까
그 갈대를 꺾어서 응접실을 치장하고
생각하는 갈대답게 아프리카를 본다

※ 참고

(가) 농업박물관 앞뜰에는 가을이 한창입니다
어린 아들에게 고개 숙인 벼의 한살이를
일러주던 한 아버지는 그 허수아비가
지키는 참새떼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허수아비가 왜 진짜 허수아비인지도
말해주지 않았지요
이문재, <농업박물관 소식>

주제: 농업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슬픔
제재: 우리 밭 어린 싹
성격: 현실 비판적

(나) 바닥에 바짝 옆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 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옮겨 붙은 아원 그녀가 온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 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문태준, <가재미>

※ 문태준 <가재미> 전문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마스크를 쓰고 암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있다
바닥에 바짝 옆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옮겨 붙은 아원 그녀가 온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 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돌아나던 대낮의 뼈꾸기 소리며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흠담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계를 떠올린다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지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쏟아버렸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 가 그녀의 물 속에 나란히 눕는다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 작품 감상

작품의 주인공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말기의 암환자이다.
그 환자는 지방 의료원 6인용 병실에 누워 있다.
문병을 간 화자는 그 환자를 보자 ‘가재미’가 떠오른다.

가재미는 광어나 도다리처럼 두 눈이 한쪽으로 쏠린 기형의 얇팍한 생선이다.
상어나 고등어 참치들처럼 민첩하게 수중을 헤엄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맨 밑바닥에 달라붙어 어렵게 살아가는 어류이다.
환자가 이 환자를 ‘가재미’로 표현한 것이 아주 설득력을 지닌다.
온몸이 등에 달라붙을 정도로 수척해 있는 육신의 모습도 그렇거니와
가난 속에 쪼들리며 한평생 어렵게 살아온 한 여인의 삶을 표현해 내는
아주 적절한 말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환자는 환자 곁에 나란히 누워 자신도 가재미가 된다.
환자와의 관계를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인척으로 보인다.
두 가재미가 눈길을 서로 주고받는다.
환자의 쏠린 가재미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
환자는 파란만장했던 그녀의 삶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
한평생 가난에 쪼들리며 살았던 시골 아낙의 불행한 생애를 떠올린다.

이제 죽음의 그늘에 그녀가 서서히 잠기기 시작한다.
환자는 한 마리 가재미로 그녀 곁에 다가가 나란히 눕는다.
그녀가 산소호흡기로 힘겹게 들이마신 숨이 나의 마른 육신을 적신다.



(다) 싸리재 너머
비행은 떴다

붉은 발고랑에서 허리를 펴며
호미 든 손으로 차양을 만들며

남양댁
소리치겠다

“저기 우리 진평이 간다”

우리나라 비행기는 전부
진평이가 몬다

윤제림 , <공군소령 김진평>

주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양산 공무원 국어 (단권 총정리 + 동백 기출 모의고사)

월~금 아침 7:20~8:20 개강: 11월 6일
교재: 양산 국어 단권 총정리, 동백 모의고사
수강료: 2개월 10만원->2만원

수강 대상:

1. 공무원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
2. 단기간에 전 영역을 총정리 하고 싶은 수험생
3. 공부를 해도 국어 점수가 잘 안 오르는 수험생

강의 내용:

1. 문법, 어휘/ 문학/ 한자/ 독해/ 9급, 7급 시험 전범위.
2. 배운 내용을 문제를 통해 복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 특강
3. 가능하면 안 외우고 기억에 남기는 연상 학습법
4. 역대 기념비적인 기출 문제를 재구성하여 동백 모의고사로 재탄생!
5. 매일 국어(훈련도감) 복습 프린트 제공!